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임지지

귀신은 안면이든 인연이든 있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니까, 보게 되면 꼭 아는 척을 하라고, 모르는 척하면 해가 된다고 누가 그랬다. 그래서 나는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놀랐다. 아는 척을 해야 하는데,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몰랐으니까.

우리가 만난 곳은 쓰레기장이었다. 근래 새로 생긴 매립지의 초입. 사방으로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대지 위에, 쓰레기를 매립할 영역을 표시하는 형광 표식들이 줄지어 있었다.

우리가 만나기 위해 풍경이 멈춘 어느 날. 연두색 덤프트럭과 높게 솟은 살수차, 포크레인 과 불도저들은 진행 중이던 작업을 중단한 채 시동이 꺼져 있었다. 여기저기 굴곡진 곳에 걸터진 그들의 무한궤도 위에는 새들이 앉아 있었다. 새들은 이따금 들리는 소음에 날아올랐다가 회전하여 제자리에 도로 앉았다.

너는 그중 하나의 구렁이에 있었다. 쓰레기 위에 쓰레기가 쏟아지고, 그 위에 뿌려진 붉은 흙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어떤 완만한 무덤 위에 너는 있었다. 약 10년 후 이 매립지가 모두 메꿔지면 이 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골프장이 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너는 미래의 골프장 위에, 땡볕에 지쳐있는 캐디처럼 있었다.

너는 텅 빈 대형건용 쉼터 위에 황망히 앉아 있었다. 인공적인 지평선 너머로 저야 하는 해는 지지 않고 반대편에서 아직 뜨지 말아야 하는 달이 떠올랐다. 해와 달이 같이 떠 있는 시간은 신비롭고 또 부정해서, 너와 내가 서로를 발견하게 된 순간을 기념했다. 나는 너를 관찰하다가, 네게 다가가기 위해 앉아 있던 낡은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섰다. 내가 일어나자마자 피아노 의자는 벨벳 커버가 덮인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며 폭삭 주저앉았다.

서로를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을 해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귀신이든, 네가 나에게 귀신이든, 우리는 서로에게 안면이든 인연이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랑의 어떤 선택지들처럼, 그것은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에도 실패한다. 그러나 이유 없음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너의 모습은 내게 끊임없이 해명을 요구하는 채무자로 다가왔다.

고도 높은 곳에서 부는 맑고 습한 바람과 주변의 악취는 한류와 난류처럼 섞이지 않았다. 나는 신중하게 쓰레기들을 넘어서 네게 다가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백골과, 뒤틀린 옷걸이, 찌그러진 텀블러, 과일 껍질과 누군가의 얼굴이 그려진 도자기, 헤어핀.

나는 절뚝거린 지 오래라 바로 걷는 법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절뚝이며 너에게 걸어갈 동안 너는 묵묵히 쉼터 위에 앉아 있었다. 내가 너를 생전 알았던가. 우리가 사후 마주친 적이 있던가. 나는 너를 기억하려 애썼다. 하지만 애쓴 지도 오래라, 마음처럼 잘되지 않았다. 희미하게 절뚝이는 내 발끝을 바라보던 너는 주머니에서 손가락만 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누르고 중얼거렸다.

멀망은 꽃처럼 피웠지만……. 너무 느리게 졌다. 하늘에 거꾸로 핀 히아신스처럼…….

나는 너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우리는 비스듬한 각도에서만 서로를 볼 수 있었다……. 어여빠하기 위해…….

여전히 나는 너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뜻 모를 말들이 너 나름의 부채감을 해소하는 방식이라 이해했다. 그것이 너의 나름대로 내게 너를 해명하는 말들이라 생각하며, 너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 뜻 모를 말들로 존재를 해명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래,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귀신들이 있었다.

내가 네게 충분히 가까워져, 우리가 서로의 이목구비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날은 가파르게 어두워졌다. 우리는 서로를 앞에 두고, 밤이 충분히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충분히 검어지기를 기다렸다. 밤은 귀신들의 시간이다. 그건 단순히 귀신들이 사람들보다 더 암흑에 쉽게 순응하기 때문이라고 누군가 그랬다. 생이 너무 짧아 성미가 급한 사람들의 암순응은 짧게는 7분, 길게는 45분이 걸린다. 사람들은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동공이 확장되고 시각계가 서서히 감도를 증대시킨다. 귀신들의 암순응은 사람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귀신들은 동공이 아니라 영혼을 연다. 그래서 귀신들은 밤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색과 빛과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것들까지도. 사물들의 윤곽선이 미처 가르지 못한 경계와 경계 없음까지, 밤이 되면 흰하게 드러난다.

어둠 속에서 나는 너의 발치에 선별된 쓰레기들을 발견했다. 히아신스가 인쇄된 4년 전 연도의 달력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사진이 인쇄된 모서리가 말린 촌스러운 엽서도 있었다. 나는 네가 걸터앉아 있는 텅 빈 대형건용 쉼벨을 바라보며, 그것이 네가 생전 기르던 개의 것이었을까 짐작해보았다. 하지만 너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슬프고 멋진 가변형 이동식 집…….

나는 오랫동안 너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그런데 계속 서 있으려니 왼쪽 발이 아팠다. 발이 아픈지 오래라, 정말로 내가 통증을 느끼는지 아닌지는 이제 희미했다.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쓰레기 더미에 삐죽 솟아 있는 20L짜리 페인트 통 위에 걸터앉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이름은 길고 복잡한 테다가 짝수 음절이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많은 이름을 잊었다. 귀신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던 사람의 이름을 잊는 것이니까. 나는 피에타 엽서를 가리키며 너에게 이야기했다.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자신의 서명을 남긴 조각이라고. 이 조각에 이름을 새기고 집에 돌아가던 날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느님은 본인이 창조하신 것들에 일일이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자신의 창작물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고. 오만한 천재의 이름이 새겨진 유일작 피에타는 정면에서 보면 예수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가 신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조각했기 때문이었다. 피에타는 한번 크게 훼손된 적 있었다.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 주장했던 헝가리 출신의 호주인 라슬로 토트가 망치로 열두 번 내려쳤기 때문이다. 그때 부서진 마리아의 손가락은 관광객 중 누군가가 가져가 버려 영영 찾을 수 없었는데, 무신론자였던 그 관광객은 평생 마리아의 손가락을 침대

말에 두고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그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신의 영광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신론자의 불면 위에만 종종 내려앉았다.

쓰레기장에는 이름 없는 것들이 모여 있다. 이름이 있었지만 잃어버렸거나 처음부터 이름 붙여질 수 없는 것들이, 혹은 이름 자체가 이곳에 버려진다. 이름표가 붙은 리코더와 렌틸콩 포장지, 오이고추와 깨진 형광등, 코 푼 휴지와 반이 잘린 신용카드, 딱딱하게 굳은 붓과 계육(鷄肋). 그래서 쓰레기장에는 귀신들이 잘 모인다. 인연이나 안면이 없어 서로를 발견할 수 없지만, 이름을 잃은 찌그러지고 구겨진 사물들의 틈, 썩어가는 유기물들의 살아있는 냄새를 맡으면서 어둠에 순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연이나 안면이 있는 무엇인가 자신을 발견해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에 좋은 곳이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잊었을 때, 쓰레기장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호기심은 때때로 세상의 가장 사소한 문제를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만든다…….

녹음기를 마이크처럼 쥐고 이야기하는 너의 목소리는 감미로운 노랫소리 같았고, 너는 단순한 노동을 늘어처럼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아 보이기도 했다. 인쇄심이 적은 어린아이가 귀신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본 적은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신비로운 휘광처럼 쓰레기 산을 둘러싸고 있는 유독가스와 수증기의 노란 빛을 보고는 쓰레기장이 성스러운 곳이라 생각하고 이곳에 깃들 때가 있었다.

놀이 장소를 잘못 찾은 어린아이 같은. 가장 더러운 곳을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 착각한 귀신같은 너의 뒤로 까마귀 떼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까마귀 한 무리가 드높은 상록수의 그림자처럼 모여 있었다. 까마귀의 깃털은 매끈매끈하고 광이 났다. 까마귀들은 암석산처럼 보이는 쓰레기더미나, 먹빛 밤하늘에 섞이지 않았다. 그들은 불도저의 높게 솟은 배기 굴뚝이나 배토판 위에 앉아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짧고 강한 울음을 주고받았다. 나는 너에게 말해주었다. 까마귀는 반짝이는 물체를 좋아한다고 알려졌지만, 반짝이는 것들을 모으는 것은 대부분 어린 개체이고, 성숙한 개체는 오히려 처음 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네오포빅이라고. 그래서 까마귀는 대부분 귀신을 보고서도 모르는 척한다. 그런데 오늘, 까마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본다. 안면이든 인연이든 있는 것이다. 우두머리 없이 무리를 이루는 까마귀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오합지졸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듯 날카롭게 울었다.

사실 까마귀와 나는 인연이 있는지도 모른다. 어둠 속으로 고개를 숙인 너의 정수리가 달빛을 받아 빛났다. 나는 갑자기 해명한다.

한때. 지난 생인지, 지지난 생인지 흐릿해진 시절에 좁은 침대에서 어깨를 겹치고 자던 사이 중에, 까마귀가 있었던 것도 같다. 까마귀였는지, 까마귀를 닮았는지, 이름이 까마귀였는지, 까마귀 병에 걸린 사람이었는지, 까마귀 귀신에 들린 것이었는지, 아니면 검정 비닐봉지를 착각했던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그 애와 함께 있는 좁은 방과 그보다 더 좁은 침대가 좋았다. 빠르게 팽창하며 멀어지기만 하는 우주의 끝과 끝에서 태어났다면, 문자 한 통을 주고받는 동안에도 몇천 개의 문명이 사라지고 다시 생겨났을 텐데. 서로의 인력을 가둔 작은 별, 좁은 방 안에서 우리는 우주의 시공간을 낭비하며 어깨를 겹치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

너는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달이 차오르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채우고 서로에게 기

울며 똑바로 되는 날은 영영 오지 않았다…….

나도 너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현달이 떠 있었다.

하현달을 보고 있으니, 내가 좁은 침대를 나누어 썼던 그 애를 떠나게 된 까닭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 애는 매일 조금씩 등뼈가 자라는 병에 걸렸다. 점점 더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힘들어지자 그 애는 하현달처럼 옆으로 누워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다. 나는 그 옆에서 초승달처럼 누워 그 애의 등뼈를 헤아리다 잠들었다. 침대는 더 좁아지기만 했고, 우리는 서로를 닦하는 말들을 각자 마주한 벽에 던지며 잠드는 날이 많아졌다. 비좁은 침대 때문에 그 애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침대가 너무 비좁아서 더는 사랑할 수 없었다.

비좁은 침대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지만, 침대가 너무 비좁아서 더는 사랑할 수 없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뜻 모를 이야기만 하던 네가, 메아리처럼 내 마지막 문장을 따라 올랐다.

밤마다 그 애의 등뼈 수를 션다. 어제는 분명 서른세 개였는데, 오늘은 서른네 개야…….

나는 자기 전마다 그의 등뼈를 세고, 부풀어 오르는 등의 살이 트지 않도록 튼살 연고를 발라 주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침대에, 내 자리는 없었다. 그 애의 걸을 떠나기 전, 직접 날이 서 있는 보닝 나이프로 그 애의 오른쪽 견갑골 부근 등가죽을 15cm가량 찢어주었다. 그의 척추와 견갑골로부터, 진화하거나 퇴화된 것처럼 보이는 원시적인 형태의 날개 뼈가 검은 핏덩이에 싸여 주렁주렁 튀겨 나왔다. 그 애에게 날개가 돋았다. 그 애의 머리카락을 닮은, 까마귀의 것처럼 검고 매끈한 깃털이 젖어 감겨 있었다. 잠시 피를 흘리다 정신을 잃은 그 애를 두고, 나는 방바닥에 호를 그린 그 애의 피를 깨끗이 닦았다. 아침이 와 정신을 되찾은 그 애는 한쪽에만 돌아난 날개가 익숙하지 않은지 균형 감각을 잃고 비틀거렸다. 계속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도만 빙빙 돌았다.

밤하늘의 어둠은,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빛들로 가득 차 있다…….

한쪽으로 빙빙 돌고 있는 그 애의 걸을 떠나오는 길에, 나는 발바닥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바닥을 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송곳이 파고드는 것처럼 따끔거리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절뚝거리며 기어코 그 애의 걸을 떠나면서 나는, 발이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내 발바닥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티눈일 거로 생각했다. 삼각뿔 모양의 티눈이, 종유석처럼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는 것이리라고.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다. 찌릿한 아픔과 함께 시원하게 티눈을 제거해주리라 믿었던 의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티눈이 아닙니다. 이건 발톱입니다. 내 발바닥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삼각뿔 모양의 티눈이 아니라,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었다.

나는 너에게 물었다. 너,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니? 너는 뜻 모를 문장으로 대답했다.

밤하늘의 어둠을 보는 것은 그래서, 실은 보이지 않는 빛을 보는 일이다…….

나는 새벽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기분이었다. 나는 서둘러 그 애에게 돌아갔다. 한쪽으로 빙빙 돌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애에게. 그렇지만 그 애는 없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한쪽 날개가 마저 돌아 날아갔는지, 알 수 없는 곳에 혼자 간혀 한쪽으로도만 빙빙 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 애의 이름을 잊었고, 그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었고, 그 애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말투를 가졌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잊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애뜻함이었는지도 잊었다. 그저 그 애가 사라진 후에, 내 발바닥에서 자라던 발톱은 성장을 멈추었다. 그리고 나는 애매하고 희미하게 절뚝이며 여생을 살았다. 그렇게 다음 생을 살고, 그렇게 귀신이 되었다. 그랬던 것도 같다. 슬픔과 후회는 기쁨때 위의 먼지처럼, 원래의 모습과 색을 지웠다. 그런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나는 산책하던 개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 애를 떠올렸고, 개가 다시 발길을 옮기듯 그 애를 또 잊었다.

밤은 끝없이 깊어지기만 했다. 쓰레기장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는 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너는 주변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너의 녹음기 전원 버튼이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녹음기의 몸체는 땀이 묻어 번들거렸고 너는 손아귀의 땀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너의 윤기 나는 손톱과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을 충실하게 꺾어내고 있는 몸짓을 보았다. 너는 녹음기를 도로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의 새 떼가 요란하게 날아올랐다. 너는 나를 지나쳐 걸어갔다. 절뚝이지 않았고, 한쪽으로 돌지도 않았다. 너는 쓰레기장의 고요한 공기를 온기로 가르며, 잠들었던 모든 새를 깨우고 떠났다. 멀리서 차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쏘아진 헤드라이트 빛은 수많은 쓰레기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밤은 귀신들의 시간이었다. 밤을 침범하는 서슬 퍼런 말들이 있었다. 나는 네가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뚝이며, 네가 앉아 있던 쉼터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주변을 느리게 돌았다. 그 애가 그랬던 것처럼. 기억나지 않는 그 애의 이름을 불러보았다.